

기승(騎乘)의 3종류로 구별한다. 각각의 목적에 이용되는 말을 만마(輓馬, 輓用馬), 타마(馱馬, 輓用馬), 승마(乘馬, 乘用馬)라 부르지만 어떤 말이라도 훈련을 잘 시키면 이들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스포츠로서 마술경기, 경마, 트래킹 등외에도 최근에는 청소년의 정조교육이나 장애자의 의료재활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말의 활용이 국제적인 흐름으로서 클로즈업 되고 있다.

외국에서는 포니 스쿨 등 학교 이외에서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이나 자연교육의 정착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형무소에서 수형자들의 사회복귀수단으로서의 무스탕의 순치·조교, 노인정에서는 의욕개발수단으로서, 신체장애자들의 재활보조역 등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말은 인간의 파트너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제사회이다.

여기서 세계 각국에서 말이 활약하고 있는 상황을 살펴하면 <표 1>과 같이 다방면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구미에서는 어린이 시절부터 가족의 레크레이션 등에서 「말은 인간의 파트너로서 존재하는 가축이다」라는 것을 양친으로부터 가르쳐 받아들이고 있다.

<표 1> 세계 각국에서 말의 다양한 활용 분야

구 분	목 적	시설·장소	사 례
교육·연수	정서교육 자연교육 기술연수	목장 유원지 포니 스쿨 교육기관 등	소풍 하이킹 과외수업 연수대책
문 화	지역행사 축제	박물관 향토자료관 문화시설 이벤트장 등	전시: 실제마, 그림 향토완구 마구 등 춤(향토 및 민속무용)
스포츠·레크레이션	체육 체력증진 마술경기 트래킹 경마 레크레이션	승마크립 크립활동 경기장 트래킹센터 유원지, 포니랜드 경마장 등	승마 말의 사양관리 참가·견학 자연과의 접촉 관람, 마권 레크레이션
산 업	농림수산업 수송업	농어촌 해안지대 경사지 등	농작업 미역채취 자재운반 벌목의 운반 관광마차
복지·고령화대책	리ハビリ테이션 사회복귀	승마시설 양호시설 등	개호(介護) 훈련

4) 세계의 말 사육두수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마필은 지난 1985년에 5,994만 여두에서 1995년도에 6,051만 여두로 증가하였다가 2001년도에는 5,824만 여두로 약간 감소추세를 보였다.

〈표 2〉에는 세계 지역별 마필 생산 현황이다. 지역별로는 중남미지역과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많은 말을 사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세계 지역별 말 생산 두수

지 역	두 수	비 고
아프리카	4,185	(단위: 1,000두)
북미	1,210	
중남미	24,104	
아시아	16,927	
유럽	4,846	
오세아니아	586	



5) 인간과 말의 연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동물을 가축이라고 부르나 말은 사람과의 인연이 소나 돼지와는 좀 다르다. 인류의 파트너로서 동고동락하는 친구로 생각하는 것이 국제적인 인식이다. 이는 오랜 세월동안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정이 흠뻑 드는 동물이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말에 접촉할 때 마음에 두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관계를 만드는 것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외국의 여러 말 관련 서적에도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기본사항이다.

2차대전 후 반세기를 보내면서 무엇보다 경제를 최우선시 하는 현재, 말에 대해서도 경제중

심의 가치관이 지배적이어서 상품가치가 높은 말의 생산, 육성, 조교, 관리기술이나 수의기술의 향상 등에 중점이 두어져 「인류 파트너로서의 말」이라고 하는 인간미 넘치는 사고방식은 사라지고 말았다.

2차대전까지는 군마로서, 그리고 전후에는 가축의 수익성에만 중점을 둔 목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폭넓은 시야로부터 필요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도인 것이다.

2. 우리 생활 속의 말

1) 스포츠

(가) 경마

그리스 로마시대(기원전 600년경)에는 4마리 말을 이용한 전차 레이스나 승마 레이스가 실시되어다는 기록도 있는 것처럼 현대의 경마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경마의 경주가 활발히 이뤄져 우수한 경주성적을 올린 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자마(仔馬)의 성적을 기대하여 혈통을 증시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더러브렛의 원산지인 영국에서는 경마는 보다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는 능력검정(後代檢定)의 장으로서 국가적으로 개량에 노력하여 왔다. 「King of sport」라 할 만큼 경마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높고, 경마장에는 가장 멋진 복장을 차려입은 상류계급의 사람들이 사교장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러 가지 품종개량의 원종(原種)으로서 더러브렛의 지위가 확보되었다.

세월이 흘러 경마는 세계 각국에서 개최되게 되었고, 소위 평지경주 뿐만이 아니라 레이스 코스 속에 몇 개의 장해물을 설치하여 비월(飛越)하면서 끝인을 목표로 하는 장해경주나 이륜의 마차(繫駕)를 끌고 속보만으로 스피드를 겨루는 계가경주 등 경주의 양식이나 출주하는 품종도 다양화 해졌으나 육종선발을 위한 후대검정으로서의 인식은 공통적이다.



〈표 3〉 세계 주요 경마개최국의 경마개황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일본(중앙 지방)
경마장수	59	266	171	404	10 (29)
경주회수					
평 지	3,804	4,340	65,112	23,582	3,285(23,317)
장 해	3,358	2,164	256	258	140(0)
속 보	0	10,068	69,920	15,248	0(0)
계	7,162	16,572	135,288	39,088	3,425(23,317)
경마투표권					
매득금총액	759,512	703,232	1,783,383	834,453	3,745,416(805,964)
한 레이스 평균	106.0	40.4	13.2	54.7	1,093.6(34.6)

* 1993년 파리경마국제회의자료, 승마투표마권매득금 단위는 백만엔

(나) 마술경기

올림픽 경기종목에는 인간과 동물이 일체가 되어 기술을 겨루는 유일한 경기로서 마술이 있다. 이 경기는 최종일에 아름답게 정비된 메인스타디움 대회장에서 경기가 이뤄지고, 경기가 끝나면 말발굽 자국이 남겨진 필드에서 폐회식을 갖는 것으로 정착되어 있다. 여기서 원래 사람과 말과의 친밀도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있다. 해외에서 국제경기대회나 국내경기대회가 각지에서 매일처럼 개최되고 있다.

국제마술연맹의 규정하고 있는 경기종목은 장해비월, 마장마술, 종합마술, 마차경기, 내구경기 외 마상에서의 연기를 겨루는 경승(輕乘) 등 6종목이 있지만 올림픽경기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것은 장해비월, 마장마술, 종합마술 등 3종목이다.





(다) 트래킹

레저 스포츠로서 트래킹(마장〈馬場〉)으로부터 밖으로 나가 야외를 승마하는 소위 외승)은 해외에서는 승마의 기본으로서 포니 스쿨 등에도 널리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이에 대한 점차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승마장마다 트래킹 코스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기승자와 말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승마기술의 한 단계를 높이는 방법으로서 보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캠핑 용품을 휴대 트렐러에 싣고 말을 태워서 1주간 이상 황야를 여행하는 호스 트레일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2) 데먼스트레이션(demonstration)

스페인 원 승마학교나 프랑스의 소뮤르 국립마술학교에서의 고등마술의 공개관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각각 문화유산(바로크 마술과 프랑스 마술)을 전승하는 자존심 높은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이벤트이다. 스페인 승마학교의 승마는 모두 국립 피바목장에서 생산된 리피차종 중에 선발된 수말이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올린 말은 종웅마(種雄馬)로서 목장으로 환원된다. 소뮤르 마술학교의 승마는 여러나라에서 생산된 앵글로아랍종, 셀·프란세종 등으로부터 우수한 말을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다.

3) 축제

말을 최초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유러시아 대륙의 우크라이나 초원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말은 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생활 속으로 들어 간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축제」의 일환으로서 개최되는 말 관련행사로 유명한 것은 독일 뮌헨의 맥주축제, 몽골 울란바토르 나담축제, 스페인 세비리아 봄축제, 모로코 마라게슈 민족예능제, 일본의 쇼마(相馬) 야생

제·주·의·문·화

마(野馬)쫓기 축제 등이 매년 인기리에 개최되고 있다. 본도에서도 북제주군의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남제주군의 고사리꺾기대회, 제주마 축제시에 말 사랑싸움놀이, 마상재 공연 등이 선 보여지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농업관련행사나 축제 혹은 말 관련 학술회의 등에 마술경기대회나 말 쇼 등이 개최일과 인접시켜 개최하거나 부대행사로써 개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산업

우리나라에서는 경마에의 편중에서 산업면에서의 말의 역할 분담이 비교적 적은 편이다. 승마나 포니의 생산은 제주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최근에는 관광자원으로서 재래마의 활용, 트리킹 코스의 개설등 지역개발과의 관련하에 계획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마육 소비량은 약 5만톤으로 연간 15,000두가 도축되고 있다. 국민 1인당 1년간 마육의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벨기에로 4kg, 네델란드 2kg, 프랑스 1.7kg으로 나타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말고기가 칼로리가 적은 다이어트 건강식품으로서 평판이 높아지고 있

다. 현재 도내에는 20개소 정도의 말고기 전문요리점이 개설되어 손님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말의 수익성이라고 하면 살아있는 말 개체의 매매가격만을 한정하여 생각하지만 해외에서는 고기나 피혁 등 가공품재료로서의 판매가격, 마구나 마차 등의 제작비, 말 임대료 등에 이르기까지를 수익으로 가산하고 있다.



5) 교육

동물을 통하여 자연을 이해시키고, 또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태도나 인간사회에 있어 커뮤니케이션의 실태 등 초중학생을 위한 교재로서 말을 활용하여 업적을 올리는 케이스도 있으나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갖인 포니 스쿨이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의 경우는 매우 뒤늦은 감이 있다.

청소년 교육의 교재로서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과(理科)의 교재로서 보다는 사람과의 오랜

공존의 역사나 가축으로서 사람과의 관련된 정조교육의 교재로서 바람직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말은 본래 체구는 크지만 동작이 민첩하고 표정이 풍부하고, 더욱이 학습에 의해 매우 복잡한 여러 동작을 수행하고, 또 기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성이 교재로서 높이 평가되는 점이다.

6) 재활의료

최근 구미에서 발간된 말 관련서적을 보면 어떤 책에도 반드시 하나의 장을 만들어 신체장애자의 재활에 승마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재활의 필요한 환자에게 승마를 시킨다는 정보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뇌성마비 어린이의 재활에 승마가 좋다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으나 말의 측면에서, 또 재활을 받는 환자의 측면에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말의 새로운 활용의 길을 걷고 있는데 따라 말의 중요성이 제고 되고 있음은 국내 최대의 마산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